

살다 보면 때때로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다. 판단은 순간이지만 선택에 따라 10년 20년, 아주 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의 투표가 그러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생각해 낸 나비효과라는 비유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 건너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커다란 폭풍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작은 선택이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나비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다는 의미도 된다.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성질과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비효과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6·2지방선거’ 정팔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운동 현장에는 각기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후보의 이름을 두고 3행시가 나오는가 하면 실용성을 강조하여 점프 상의와 등산바지 차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선거에 참 무관심하다. 어지러운 확성기소리나 한 표를 부탁하며 내미는 명함에도 별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투표, 우리의 미래 위한 선택

시선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애초부터 이번 선거를 유권자들은 노풍(盧風) 보다는 북풍(北風)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천안함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천안함 사태에 기대려는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북풍차단과 함께 노풍을 타고 싶어 한다.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에는 친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집결했다. 이들은 그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도 참석했다. 한 후보는 이날 “지방선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야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하기 위한 방안은 뒷전이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듯한 행태는 분명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여당의 정권 안정론일지 야당의 정권 견제론이 될 지 모두 한번쯤 숙고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꼭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여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들로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재워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편으로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도 우리가 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가 한 표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만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람은 원래 결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버리면 저절로 지혜가 드러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현명한 지혜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

발심은 마음을 내는 것이다.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는 첫 마음이 초발심(初發心)이다. 초발심은 매우 중요한 마음이다. 발심하면 궁극적인 증생으로서의 고뇌를 타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마음을 내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나라의 미래에 힘이 되자. 뜻과 이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합일일 것이다. 보살의 마음으로 투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사설

평화는 종교의 책임이다

지난 5월 27일 미국의 <타임>지는 인터넷판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된 때에 나온 보도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충돌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국지적 교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자칫 통제할 수 없는 국지전으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는 또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간의 소통수단이 단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는 이 기사가 상상일 뿐이길 바

란다. 전쟁은 참혹하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한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북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임이 아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아지지 않으며,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토머스 머튼은 미국 첫 통제할 수 없는 국지전으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는 또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간의 소통수단이 단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는 이 기사가 상상일 뿐이길 바

한일불교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31회를 맞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5월 25~29일 일본의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 엔라쿠지(延曆寺)를 주대회장으로 하여 열렸다. 양국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 고준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해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병행하고 ‘양국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함께 성지순례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매년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31회 대회를 치렀으니 한 세대를 이어온 연륜을 쌓았다. 두 나라 불교계는 이 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길을 찾았다. 경북공에 있었던 관월당을 반환키로 한 것도 두 나라 불교계가 다져온 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매년 대회를

마치면서 발표하는 공동선언문의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두 나라 불교계는 자연과 회장으로 하여 열었다. 양국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 고준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해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병행하고 ‘양국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함께 성지순례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매년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31회 대회를 치렀으니 한 세대를 이어온 연륜을 쌓았다. 두 나라 불교계는 이 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길을 찾았다. 경북공에 있었던 관월당을 반환키로 한 것도 두 나라 불교계가 다져온 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매년 대회를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과 기도를 비는 기도를 한다. 쌀쌀한 겨울 대하 수능시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녀의 대학입학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범당과 성당 및 교회들을 가득 메우곤 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성공과 이목을 끌고자 건강, 자녀의 학업 성취 및 고시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소리가 매일 매일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여러 종교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과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회향을 한다는 점이며 또한 종교적 채찍 넘어 스스로가 여래의 씨앗을 가진 존재로서 불보살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과정 즉 수행이라는 점이다.

경전을 읽는 독송, 스스로를 낮추며 하심(下心)의 자세를 갖게 하는 108배·3000배,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들여 쓰는 간경, 스스로를 관하며 본질을 찾아가는 참선 등은 불교의 수행방법이자 기도방법이다.

선수행하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옹매정진하는 사찰로 유명한 봉암사가 1년 중 유일하게 일반 재가신도들에게 사찰을 개방하는 날인 부처님 오신 날 수좌스님을 찾아 보았다. 스님은 37조도품을 설명하며 37조도품이 각각 별개나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사부대중 칼럼

염석훈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기도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 각각이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선 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리 아프고 오래 앉아 있기 힘든 것을 참아 넘어서서 인욕을 하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을 지키게 되며, 올바른 수행력을 쌓게 됨으로서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보시를 하게 되고,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감으로 정진하게 되고, 선정에 들어 지혜를 얻게 됨으로 6바라밀을 닦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매일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마음을 먹고 잠자기 전 경전을 독송하며 기도를 하면 합수륙 밖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온 날, 피곤한 날 등

이런 날에는 천수경을 독송하기가 무척 힘들다. 하지만 참아내고 경전을 읽음으로서 인욕하게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계를 지키게 되며, 기도 끝에는 항상 남을 위해 회향함으로써 보시를 하고 꾸준하고도 부지런하게 지켜나가기 정진이며 점차 잡념이 사라지고 일심으로 독송하니 선정바라밀이며,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니 지혜바라밀이 된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의 길을 걸어가며 불보살이 마음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다.

처음으로 기도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이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당시 정각원장 법산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였다. 당시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얼굴을 보면

편안해지고 목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지고, 이름을 통해 믿음과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려고 가르쳤다. 이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를 나를 만들어가는 모태이자 오늘도 매일 <천수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즐겁고 모든 사람들의 내 이름을 알고 듣게 되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책려하고 공부하며 노력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편해질 수 있도록 항상 웃음을 머금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바른 말과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들을수록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하여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언제나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으로 아침 저녁 외우는 예불문에 나오는 명훈가피력(冥熏加被力)이 아닌가 싶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서 공덕을 쌓게 됨으로 재단이 절로 피해가고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됨으로서 주위를 환하게 하고 주변을 기쁘고 즐거움에 들뜬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재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편집: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함